

헤럴드 기어 변호사

HAROLD J. GERR
Attorneys at Law

자동차 혹은 트러카고, 척추나 디스크에 관련 된 사고, 공사현장 사고, 뼈가 부러진 사고, 범죄로 희생양이 된 사고, 각종 상해, 사망사고

1-877-249-4600

47 Raritan Ave. Highland Park. NJ

은빛 요양원

풍요로운 노후의 삶을 도와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수준 높은 전문가 서비스
가정 같은 또 하나의 생활공간
간호, 간병, 전문 재활치료
한국문화 정서와 여가 활동

한국어 직통

732.770.0609

www.은빛요양원.com

16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



준 풀턴 부동산
908-295-7053

준 '윈출' 풀턴
Sales Associate
Re/Max Instyle Realty
june@instylerealty.com



1378 Route 206 Suite 202, Skillman, NJ 08558 junefulton@remax.net

퀵 모기지

주/택/용/자/전/문

다양한 용자 상품, 전화 상담 환영

Gabriel B Park (NMLS 1161224) Senior Loan Officer

Direct (908) 293-2215

gspark@kwikmtg.com / Licensed NJ NY PA CA FL CT MD VA TX

VESTA·OH

Kitchen & Bath Renovation

부엌, 욕실 전문그룹

오영은 토마스 | m 917-662-8353 | kitchenoh@hotmail.com

은퇴플랜 및 재정설계 컨설팅

Advisors U Trust, LLC

401k, IRA, Annuity (개인연금)
생명보험, 메디케어 & 건강 보험
자동차 주택 건물 비즈니스 보험



박가브리엘 (732) 865-1597
Licensed in NJ & NY advisorUtrust@gmail.com

메디케어 무료 상담
올바른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박미원
Independent Licensed Agent

문의 전화 908 655 5339

이문식
검안과
Family Vision Center

Dr. Douglas M. Lee, Optometrist
각종 안질환 치료
백내장 검사 및 녹내장 치료
검안 및 시력 교정
아동 시시 치료 및 시력 교정
콘택트렌즈 및 안경 맞춤

P. 732-393-1210
1734 Lincoln Hwy (Rt.27)
Edison, NJ 08817
에디슨 H-Mart 앞

에디슨 현대정비 Hyundai auto repair
종합정비
Auto Repair · Service

김도영 (Philip Kim)
C/P : 732-853-5696
Tel : 732-543-1110
1808 Woodbridge Ave. (Rt.514)
Edison, NJ 08817

HONORS REVIEW East Brunswick

SAT, ACT, APs, Enrichment Programs
우성현 스테파노 732-254-3349
3 Lexington Ave East Brunswick NJ 08816

ND EAST BRUNSWICK
NEW IMAGE DENTAL LLC

444 Ryders Lane
East Brunswick, NJ 08816
Tel. 732-432-8388

J. Woo D.D.S.

강준한의원

진료 안내
한의원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통증과
교통사고 후유증
각종 환약(보약, 치료약)
침, 뜸, 부항
중국 전통식 지압

(732)287-8881
1734 Lincoln Highway Rt.27, Edison
에디슨 H-Mart 앞 확장 이전

종합건축 AAMD construction

주택, 상가, 무료 상담 및 견적, 면허, 보험소지
골치 아픈 문제(건축허가, 누수), 비닐 담장, 데크, 마루, 욕실, 주방,
지하실, 상가 리모델 등 건축 전반에 책임사공(기본 1년 보증)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성당 교우 10% DC)
732-964-9787
email: aamdconstruction@yahoo.com

성지순례, 단체관광, 크루즈 전문

가고파여행사

201-302-0820

353 Broad Ave. Suite 203 Leonia, NJ 07605

BOYLAN
Funeral Home

Edison 732-572-0076

HYUNDAI TOYOTA KIA NISSAN
Jeep CHRYSLER

SANSONE AUTOMALL

BEST CAR, BEST PRICE

90-100 RT.1 Avenel NJ 07001

Manny Kim
201-852-3232

연중 제 13 주일 (교황 주일)
2020년 6월 28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 : 00 PM
수 ~ 금 - 9 : 00 AM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 : 00 PM
일요일 (영어) - 8 : 00 AM
(영어) - 10 : 00 AM
(한국어) - 11 : 30 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의회장 한상철 빈센시오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마태오 10,37-42

<이번주 전례 안내>

제1독서 열왕기 하권 4,8-11.14-16
화답송 시편 89(88),2-3.16-17.18-19(◎ 2가)

복음환호송 1베드 2,9
너희는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니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위업을 선포하여라.

복음 마태오 10,37-42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후렴: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6,3-4.8-11

<주간 말씀 전례>	제 1독서/제2독서	복음 말씀
월요일 6/29/20	사도행전 12,1-11 사도 바오로 티모테오 2서 4,6-8.17-18	마태오 16,13-19
화요일 6/30/20	아모스 예언서 3,1-8; 4,11-12	마태오 8,23-27
수요일 7/1/20	아모스 예언서 5,14-15.21-24	마태오 8,28-34
목요일 7/2/20	아모스 예언서 7,10-17	마태오 9,1-8
금요일 7/3/20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2,19-22	요한 20,24-29
토요일 7/4/20	아모스 예언서 9,11-15	마태오 9,14-17
일요일 7/5/20	역대기 하권 24,18-22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5,1-5	마태오 10,17-22

미사지향

연미사 (봉헌자)

- 최경삼 (안나) - 오 요한, 김영필(안토니오)
- 정영옥 (수산나) - 가족
- 김상기 (요셉) - 가족
- 조원봉 (빈첸시오) - 가족
- 장인석 (미카엘) - 가족
- 이화자 (마틸다) - 가족
- 김명자 (헬레나) - 가족
- 김교식 (야고보) - 가족
- 한정숙 (레지나) - 가족
- 최남순 - 박화성(헬레나) 가족
- 광창진(스테파노) - 가족
- 채병익(요셉), 유태순(마리아) - 채희백(바오로)

생미사 (봉헌자)

- 전선희(다니엘라), 전선임(아네스) - 가족
- 유희자(베로니카) - 가족, 김인영(수잔)
- 김경희(수산나) - 가족

교무금 납부 안내

곽신규(5-6)	손영수(1-6)	김안나(6)
최현지(1-6)	오용덕(5-6)	
합계: \$930		

감사 헌금 납부 안내

최율리오(\$500)	김안나(\$100)
합계: \$600	

주일 헌금 납부 안내

미사참여 32명	야외영성체 참여 45명
합계: \$957.50	

-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 헌금, 교무금, 감사헌금 - Payable to OLM

2020 Bishop's Annual Appeal

- 교구청으로부터 받으신 Bishop's Annual Appeal 봉투를 직접 교구청으로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전달하시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헌금액은 지속적 복음화와 선교사업, 신학생, 청소년 양성 및 가난하고 소외된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되며 2020년 본당 할당금액은 \$35,000입니다.
- 6월19일까지 약정된 금액은 \$33,612.50 (96%) 입니다

공지 사항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 하여 모든 회의 및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단체장을 통해 전달해드립니다.

미사 지향 (생미사/연미사) 신청 변경 안내
- 교구청 지침에 의거하여 8월부터 장기간(월 또는 연간) 미사 지향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미사 지향 신청은 1회씩만 가능하며 미사 예물은 \$10입니다.

매일미사 책 배부 안내
-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 매일미사책을 배부하려고 합니다. 매일미사책 신청하신 분들은 구역장님들에게 신청 권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미사 책 신청 안내
- 1년 구독 비용 : \$48 (신청마감 7월 26일까지)
- 구독기간 : 2020년 8월 ~ 2021년 7월
-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별로 신청자를 취합하셔서 사무장에게 신청명단 및 구독비용을 전달해주시시오.

견진성사 신청자 및 2020-21 예비자 모집
-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 견진성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 또는 예비자 교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또는 이서형(요안나) 선교분과장님께 연락바랍니다.

AmazonSmile 안내
- 자세한 사용방법은 홈페이지 Gift란을 참고 바랍니다. <https://www.edisonkcc.org/donation/>

방역작업에 수고해 주시는 대건회와 야외 영성체 진행에 수고해 주시는 요셉회, 프란치스코회, 야고보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최규학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김진철 요한, 오옥순 수산나, 김경희 수산나, 오홍순 카타리나, 유희자 베로니카

성당 교무금 및 헌금 납부 방법

1. **우편으로 납부**
분실위험으로 인해 체크만 가능하며, 납부하시는 분의 성함과 교무금, 주일헌금, 특별헌금을 각각 구분하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Payable to OLM)
2. **현금으로 납부**
1) 사제관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우편함에 넣어주시거나,
2) 구역장님이나 대리인이 수거하여 사제관 우체통에 넣어주실 경우 구역원과 구역장님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미리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3) 봉투에는 납부하시는 분의 성함과 위에서 설명드린 납부 목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Venmo**
친구찾기로 “SBB-LEE”찾으시고, 프로필에 성당 사진과 Namwoong Lee 이름 확인하신 후, 납부하시는 세대주 성함과 헌금 종류를 구분해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사무장에게 문의바랍니다.(732-258-5998)
4. **야외 영성체**
주일 오전 9 -10시까지 있는 야외 영성체에 오셔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교무금 및 헌금 납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신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태오 복음 10,37-42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앙 칼럼

8.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마태 5,9).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평화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 의미로 풍요로움, 번영, 평안이라는 뜻을 지닌 아름다운 단어 ‘shalom(shalom)’으로 표현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shalom’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아름답고 충만하며 번영하는 삶을 기원하는 것이지만, 또한 평화의 임금인 메시아 안에서 완성될 진리와 정의로운 삶을 바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이사 9,6; 미카 5,4-5 참조).

두 번째 의미는 “평화”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뜻으로, 일종의 내적 평온함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나는 평온하다.’ ‘나는 평화롭다’와 같은 것입니다. 이는 현대적이고 심리적이며 주관적인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평화를 고요한 것, 조화로운 것, 내적인 균형 등으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평화”라는 단어의 의미는 불완전하며, 절대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삶은 성장의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주님 스스로 우리 안에 불안을 심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만나러 가고, 당신을 찾아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불안은) 성장의 중요한 순간입니다. 반면 내적 평온함은 길들여진 양심과 관계하면서, 참된 영적 구원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거짓된 안전들을 뒤흔들어 놓으심으로써 자주 “반대의 표징”(루카 2,34-35)이 되셔야 했습니다. 평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주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에 도달하기 위한 길 위에 우리를 놓아두십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이 당신의 평화를 인간의 평화, 세상의 평화와 다르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요한 14,27). 예수님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다릅니다.

우리 스스로 자문해봅시다. 세상은 어떻게 평화를 주는가? 무력충돌을 생각해 봅시다. 전쟁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끝납니다. 두 당사국 중 한쪽의 패배로 끝나거나, 서로 간의 평화조약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두 번째 방법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희망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혹은 다른 방식이나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전쟁의 변형에 의해 철회된 수많은 평화 조약들이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러 가지 배경과 다른 방식으로 “국지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이탈리아 레디폴리아 제1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 묘지에서의 강론, 2014.9.13; 사라예보 강론, 2015.6.6; 교황청 교회법평의회 연설, 2020.2.2.1 참조). 우리는 적어도 모든 경제적 혹은 금융적 이익에 따른 세계화의 맥락 안에서 일부의 “평화”가 다른 사람들의 “전쟁”에 해당한다고 의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평화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아닙니다!

반면, 주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평화”를 주십니까? 우리는 사도 바오로가 그리스도의 평화란 “둘을 하나로 만들고”(에페 2,14 참조), 적의를 없애고, 화해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평화의 사업을 성취하는 길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다른 서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통해 평화를 이룩하시고 만물을 화해시키셨습니다(콜로 1,20 참조).

이 시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일곱 번째 ‘참행복’은 가장 활동적이고, 분명 역동적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자면 창조 활동을 위한 성경의 첫 구절에 사용된 표현과 유사하며 주도권과 부지런함을 가리킵니다. 하느님 당신 피조물을 향한 사랑은 창의적이며 - 사랑은 항상 창의적입니다 - ,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화해를 추구합니다. 평화의 예술을 배우고 행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녀로 불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선물 없이는 화해가 없으며, 항상 어떤 경우에도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경우에도 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평화는 이런 식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의 열매인 자율적인 일이 아닙니다. 반면, 이것은 우리의 평화이시며,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은총의 표현입니다.

참된 샬롬과 참된 내적 균형은 그리스도의 평화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분의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수많은 성인 성녀들의 무리 안에서 구현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냅니다. 성인 성녀들은 새롭게 사랑하는 방식을 고안해내며 창의적이고 독창적입니다. 성인 성녀들은 평화를 건설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통해 형제들을 찾아 나서는 하느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은 참된 행복입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출처:
<https://www.vaticannews.va/ko/pope/news/2020-04/papa-francesco-catechesi-udienza-generale-beatitudini-pace.html>